



2013 Autumn

박물관풍경

風景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과 궤를 함께한 자유공원

자유공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1883년 각국공원에서 1914년 서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5년 광복 후엔 만국공원이라 불리다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여 1957년 맥아더 동상을 세우면서는 자유공원으로 개칭되었다. 격변했던 나라의 운명만큼이나 공원의 이름도 변화해갔다.

올해는 한반도 정전체제 60년.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정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완전한 평화체제의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는 날, 자유공원은 또 어떤 이름으로 바뀔런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제2회 동아시아우호박물관 순회기획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학예원 히비노 토시노부

北九州市立自然史・歴史博物館 学芸員 日比野利信



인천광역시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는 1963년 2월 10일 모지·고쿠라·와카마츠·야하타·도바타의 다섯 개 시가 대등 합병하여 탄생하였고, 올해로 시 성립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우호박물관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은 이에 50주년 기념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을 기획하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仁川広域市の姉妹都市である北九州市は1963年2月10日に門司・小倉・若松・八幡・戸畑の5市が対等合併して誕生し、今年市制50周年を迎えました。仁川広域市立博物館の友好博物館である北九州市立自然史・歴史博物館は市制50周年記念展「北九州ー工業都市の風景」を企画し、仁川広域市の皆様にお届けします。

간몬해협에 임한 기타큐슈는 오래 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이며 규슈의 관문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여 각 시대의 정치권력에서도 중시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치쿠호우탄전의 석탄을 수송, 판매하는 축으로 철도와 항만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관영제철소가 야하타에 세워지고 관련산업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기타큐슈는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여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서 일본의 산업발전을 지탱하였습니다.

関門海峡を臨む北九州の地は古来交通の要衝であり、九州の玄関口として、東アジアに対する窓口として時の政治権力も重視した地域でした。また筑豊炭田の石炭を輸送・販売することを軸として鉄道と港湾の整備が進められました。このような条件を背景として、官営製鐵所が八幡に建設され、関連産業も盛んになりました。こうして北九州は工業都市として、また港湾都市として発展し、日本の四大工業地帯の一つとして日本の産業発展を支えました。

이번 전시회는 우선, 야마모토 사쿠베이의 탄광기록화와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조감도를 중심으로 '석탄과 철의 마을'로서 발전해온 기타큐슈의 경로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치쿠호우지방 다가와시가 소장한 야마모토 사쿠베이의 작품은 일본 최초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으로 등재된바 있습니다.

출품 작품은 세계기억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야마모토가 작업한 가장 대형의 작품입니다. 또한 요시다 하츠사부로는 일본 국내의 도시, 철도, 관광지를 그려낸 독특한 조감도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조감도도 제작하여 이것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今回の展覧会ではまず、山本作兵衛の炭鉱記録画や吉田初三郎の鳥瞰図を中心に「石炭と鉄のまち」として発展した北九州のルーツと特徴をご紹介します。筑豊地方の田川市が所蔵する山本作兵衛の作品は日本初のユネスコの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今回の作品は世界記憶遺産の登録作品ではありませんが、山本さんによる最大の作品です。また吉田初三郎は国内外の都市や鉄道沿線、観光地をえがいた独特な鳥瞰図を数多く制作したことで知られます。仁川の鳥瞰図も制作していて仁川広域市立博物館でご覧いただけます。

다음으로, 시 성립 50주년을 앞두고 기타큐슈 시민에게 공모한 사진자료에서 볼 수 있는 옛 기타큐슈의 모습이나 생활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이후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사진 애호가도 증가하고 많은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사진들은 그 시대의 기억으로서 귀중한 역사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된 사진을 보면 기타큐슈시의 2대 대교로, 건설 당시 '동양제일' 이라 불렸던 '와카토대교' (1967년 개통)와 '간문교' (1973년 개통)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기타큐슈 시민이 두 대교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도 거대한 다리가 있죠? 항구도시로서 두 도시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난치는데 열중한 아이들의 웃는 얼굴도 국가나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는 점이겠습니다.

次に、市制50周年を前に、北九州市民から公募した写真資料により、かつての北九州市のまちなみやくらし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日本では1950年代以降カメラが普及し、写真の愛好家も増えて、多数の写真が撮影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現存する写真はその時代の記録として貴重な歴史資料になっています。今回募集した写真を見ると、北九州市の二つの大橋で、建設当初「東洋一」と称された「若戸大橋」(1967年開通)と「関門橋」(1973年開通)の写真が目立ちます。北九州市民が二つの大橋を誇りに大切に思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仁川広域市にも巨大な橋がありますね。港町としての両市の共通点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遊びに夢中な子どもたちの笑顔も、国や民族の違いを超えて共通しているでしょう。

인천광역시 시민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번 기획전에 오셔서 기타큐슈시를 좀 더 알고 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仁川広域市のみなさまに1人でも多く今回の企画展をご覧いただき、北九州市についてもっと知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2013년 순회기획전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전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합니다.

Contents

- 02 전시프리뷰
기타큐슈-공업도시의 풍경
- 04 전시리뷰 이 순간들
- 06 전시리뷰 자이니치의 학교들
- 07 인천, 도시탐사 도원동4
- 08 청소년기획 배다리, 알랑가몰라
- 10 자료수집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유물기증
- 11 박물관 소식
- 12 소장유물 정수영 산수도

1

2

- ① 〈탄광기록화〉 야마모토 사쿠베이 1975
- ② 〈와카마치시 조감도〉 요시다 하츠사부로 1934

3

4

5

6

- ③ 〈공해 속에서 실뜨기를 하며 노는 아이들〉 1969
- ④ 〈숨바꼭질〉 1968
- ⑤ 〈매연 속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엄마와 아이〉 1961
- ⑥ 〈건설 중인 와카토대교〉 1972

청소년 참여전 「이 순간들」의 순간들



순간 1. 의도와 방법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청소년 참여전 「이 순간들」은 몇 가지 바람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나는 전시 오브제를 특별하거나 훌륭한 것들만이 아니라, 관람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게 한다는 것이었다. 관람자가 바라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닌, 관람자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다른 관람자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었다. 동등한 정신만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바람은 청소년기를 누구나 다 거치는 일반적인 과도기로서가 아니라, 그 시기만의 독특한 언어와 정서가 있는 '순간'으로 주제화하는 것이었다. 즉, 청소년기를 '큰 어린이'도 아니고, '작은 어른'도 아닌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시기로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화는 그들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와 방법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참여전 「이 순간들」에 전시된 작품들은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수상작과 인천 시내 학생들로 구성된 모듬반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시각장애인 학교인 해광학교 학생들이 보내온 사진들과 조각 작가들의 초대작으로 구성되었다.

애초에는 오브제 전체를 공모 결과만으로 꾸미려고 하였으나, '혹시'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모 작품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그 방편이자 참여 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추어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반, 영상반, 사진반 모듬활동을 조직했다.

공모전의 홍보와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청소년의 감수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체 자체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만의 정서를 그들의 언어로 잘 표현했는가의 여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공모 수상작들 대부분이 통념이나 기존의 표현 방법에 기대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순간 2. 펼쳐진 다섯 개의 순간들

실제 작품을 전시하는 단계에서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전국에서 모인 다종다양한 작품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전시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매체별로 혹은 표현된 공간별(학교, 집 등)로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혼한 방법인 것 같았다. 주제별 분류도 생각했지만, 비슷한 작품이 함께 있는 것도 썩 좋은 구성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청소년들의 작품에서 표현된 그 '순간'의 성격에 따라 작품을 나누고, 다시 그 '순간'을 성격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현된 작품을 현실로 불러내어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작품들을 4가지 '순간'들로 나누고, 여기에 초대작을 합하여 총 5부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1부에는 일상에서의 익숙하고도 미묘한 순간들을 포착한 작품들을 모았다. 학교나 집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서 일상은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묘한 순간을 품고 있다. 이 '미묘한 순간' 때문에 익숙한 일상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한 작품들로 1부를 구성하였다.



1부 〈2+1〉 영상 8:19" 윤수지 · 이은결 (동국대부속여고 3)

2부에는 청소년들 내면의 욕망을 드러낸 작품들을 모았다. 욕망이란 자신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내면에 감추고 있는 한 전혀 인식할 수 없다. 그 욕망을 표현하는 순간, 익숙함은 다시 낯설어진다. 욕망은 하고자 하고, 절규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모에서는 대부분 후자의 작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와 제도에 대한 반항과 부정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3부에는 '참을 수 없는 ... 순간들'이란 주제 하에 학교 문제에 대한 작품을 모았다. 학교 폭력과 학교 규제에 대한 리얼한 묘사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폭력의 가해자가 대항-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기회로 자신의 폭력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포착한 작품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제도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기가 합쳐져야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청소년들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부에는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아직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미숙하더라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려는 시도가 신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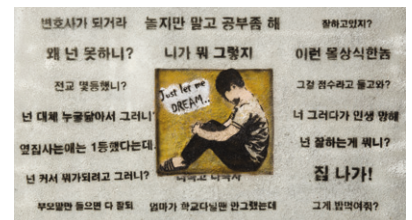
5부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초대작으로 구성하였는데, 1~4부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없는 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순간 3. 아쉬움과 고마움

처음 전시를 기획할 때는, 동등한 정신간의 끝없는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오브제의 창작과 전시 구성, 그에 대한 해석 모두를 참여한 이들에게 개방하고 싶었다. 결과물이나 그 결과물의 집적으로 드러날 서사를 미리 상정하지 않는 전시를 상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전시를 끝내고 나니 여러 순간들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순간 순간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던 청소년 친구들을 생각하면, 웃음 한편으로 인연을 맺은 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언제 볼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졌으면 한다.

- 1부_ 익숙하고도 미묘한 순간
- 2부_ 익숙하지만, 낯선 순간
- 3부_ 참을수 없는... 순간들
- 4부_ 이런 순간, 저런 경우
- 5부_ "그 순간이 행복이다"

1부 〈마음의 흐름 1·2〉 사진 윤우성
(인천해광학교 고등 2)2부 〈그냥 꿈꾸게 해줘〉 그림 77.0×60.0cm
조현호(부평고 1)

3부 〈주마등〉 영상 19:13" 이현준(서울공예예술고 3)



민족학급의 수업 모습(코리아 NGO 센터 제공)



「자이니치(在日)의 학교들」 전시장 풍경

전시리뷰

재일 한인 민족교육 자이니치(在日)의 학교들

한국이민사박물관 김윤정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해외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특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자이니치(在日)의 학교들」(6.13 ~ 10.31)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서는 재일 한인들의 이야기, 특히 이들이 자녀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민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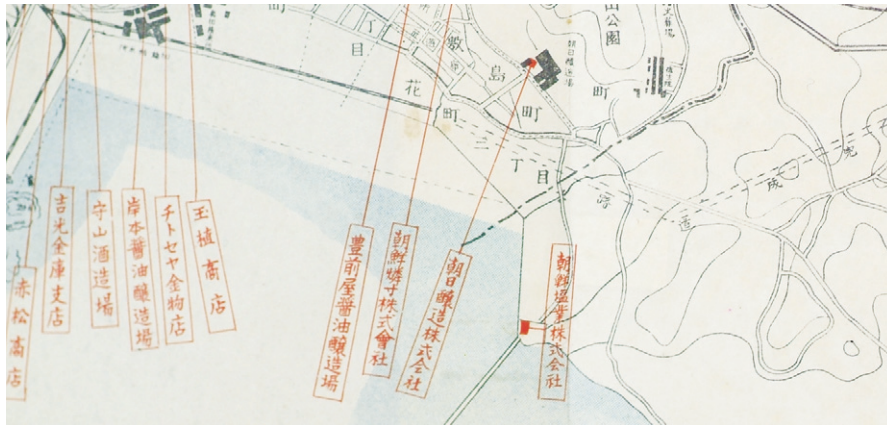
전시의 전반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재일 한인사회와 민족교육의 시작, 그리고 민족교육을 수행하는 민족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수탈에 못 이겨 살길을 찾아 나서거나 전쟁수행을 위해 강제연행 된 자들, 이들이 모여 재일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당시의 사진과 연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식민지 본국인 일본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방이 되고, 재일 한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에 젖어 있었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황민화 교육으로 일본어 밖에 할 줄 몰랐던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국어강습소를 세웠다.

일본 안의 민족학교는 해방 이후 설립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인 차별정책에 시달려 왔다. 재일 한인들이 해방이 되어서도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최고사령부(GHQ)나, 일본정부로부터 독립을 이룬 나라의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인들의 민족교육은 부정되고 조선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이 각 지방에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재일 한인들이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지역을 중심으로 '한신(阪神)교육투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시 되고 있는 당시의 투쟁에 대한 뉴스 영상과 폐쇄된 민족학교의 대안으로 설치된 '민족학급'에 대한 사진과 학습자료들은 한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준다.

현재 일본 안의 민족학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재일 한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운영의 한국학교가 4개,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운영의 조선학교가 250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민족학교의 상당수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 민족학교의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일본정부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채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한국학교와 조선학교 구분 없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일본 안의 민족교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선
력사



인천부관내도에 보이는 아사히양조주식회사 (1935. 08)

1906년 11월 인천부 부내면 하나초우[花町]에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堺市]에 본점을 둔 타쿠[宅]합명회사의 양조장이 문을 열었다. 19세기 초 오사카에서 가내공업의 형태로 청주를 생산해 오던 것을 1896년 타쿠 토쿠헤이[宅徳平]가 타쿠합명회사로 창업하면서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군수품으로 청주를 납품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졌으며, 이 회사의 제품인 “가와카메[澤龜]”는 중국과 대만 등지에 수출되어 일본 청주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1906년 인천에 지점과 양조장을 개설한 타쿠합명회사는 1910년경 모모야마초우[桃山町] 47번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한데다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1919년 아사히[朝日]양조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1919년 인천부 마츠자카초우[宋坂町-지금의 송월동]의 요시킨[吉金]주조장과 모모야마[桃山] 남쪽 기슭에 있던 타쿠합명회사를 인수한 아사히양조주식회사는 양조업을 이원화시켜 운영하였다. 송월동에서는 “금강학(金剛鶴)”이라는 청주를 생산하였으며, 도원동에서는 “금강표(金剛標)”라는 상표를 붙인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식 소주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아사히양조주식회사에서 생산되었던 청주 “금강학”과 소주 “금강표”는 1945년 해방 때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술로서 명성을 떨쳤다.

1945년 해방 이후 적산기업인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김영기(金永基)가 부임하여 사명을 조일양조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금강표 소주와 함께 일제말 상표를 바꾼 ‘신세(新勢)’라는 이름의 청주를 출시하면서 인천 제일의 양조장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사세가 기울어 도원동 양조장은 6.25전쟁 직후, 송월동 양조장은 1960년대 초에 폐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도원동에 있던 양조장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다가 철거되었고, 1978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실내수영장이 건립되었다.

2012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8번지의 낡은 2층 건물이 철거되었다. 당시 이 건물이 아사히양조장 건물이라 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너무 낡아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하여 철거를 강행하였다. 선화동 8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이 아사히양조장이 위치했던 도원동 47번지와 48번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건축양식이나 형태로 보아도 1930년대 이전의 건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거의 당위성을 더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1940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의 “동년 5월 26일 아사히양조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신축별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는 기사와 1939년 발간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에 모모야마초우 47번지였던 아사히양조주식회사의 주소가 1942년에는 시키지마초우[敷島町-지금의 선화동] 8번지로 변경되어 있는 기록에서 볼 때 선화동 8번지의 철거된 2층 건물은 1940년 신축된 아사히양조주식회사의 별관건물임이 분명하다.

인천, 도시탐사

도원동 4 아사히양조주식회사

전시교육과장 배성수

이미 헐려버린 건물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대기 인천의 대표산업 중 하나였던 양조업, 그리고 인천 제일의 양조회사였던 타쿠합명회사, 아사히양조주식회사가 위치했던 장소성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질 것 같아 두렵고, 아쉬울 따름이다.



2012년 철거된 중구 선화동 8번지 아사히양조장 건물



아사히양조 광고표

배다리, 알랑가몰라

1기 청소년기자

김지영(인천여고), 서진경(해송고), 정한솔(덕적고), 최지석(연수고)



배다리

배다리는 인천시 동구 금창동과 송현동, 창영동 일대로, 동인천역에서 철교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배다리 전통 거리 이정표가 보인다. 19세기 말까지 이곳에는 큰 갯골수가 있어 만조 때면 바닷물이 들어왔고, 1900년 경인철도가 생긴 뒤 철로 주변을 개발할 때까지 배가 닿는 다리가 있어 '배다리'라고 불렸다. 19세기 일본의 조계지로 인해 살던 터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한국전쟁 후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이 모여 마을이 생긴 것이 배다리 마을이다. 한때는 현책방거리로 유명하여 50여 개의 책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5~7곳밖에 남아 있지 않다.

갈 만한 곳

배다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현책방거리다.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추억을 기억하며 가볼 만하다. 또 현책방거리에 있는 '시가 있는 길'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시낭송회를 열어 시인을 만날 수도 있다. 현책방거리를 지나면 '스페이스 빔'이라는 곳이 나온다. 스페이스 빔 입구에는 강통 로봇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으며, 내부에는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스페이스 빔에서 직진으로 걸어가다 보면, 조그만 사진관도 볼 수 있다.

배다리 골목은 예쁘고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있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한다. 또한 배다리 근처 송림동의 오래전 모습을 보고 싶다면, '수도국산 박물관'을 가보자.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의미 찾기

사실 2006년, 배다리는 큰 위기에 처했다. 당시 송도와 청라를 잇는 상업도로를 짓기 위해 재개발로 계획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였다. 배다리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반대했을까?

배다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천 3.1운동의 시발지이자 한국 최초의 사립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가 있고,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인 창영초등학교도 있다. 이 두 학교 건물은 현재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 일대는 피난민들이 가지고 온 책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생긴 현책방거리가 보존되어 있다. 1920년대 당시 전국적인 명성의 막걸리(현재 소성주)를 제조한 옛 인천양조장 건물과 옛 성남공장 터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요즘은 벽화 마을과 굽이진 좁은 골목들이 있다.

스페이스 빔

앞서 말했듯이 지난 2006년 재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배다리 마을이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그때 배다리 마을의 소중함을 알고, 예술로서 배다리마을의 파괴를 막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강동 로봇으로 유명한 '스페이스 빔'이다. '스페이스 빔'은 1995년 '지역미술연구모임'으로 출발하여 지역문화의 독자적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성·지역성·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대안적 미술 활동 공간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린 만남과 생성적인 소통을 주선해 왔다. 2007년 9월 근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배다리 옛 인천양조장 건물로 이전하여, 지역 안의 다양한 예술 활동(마을축제, 도시포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으로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스페이스 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스페이스 빔의 민운기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였다.

- 스페이스 빔이 처음에는 구월동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 배다리로 온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미술연구모임'에서 '도시유목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유목한 곳이 여기 배다리입니다. 유목을 할 당시 텐트를 친 곳이 도로를 놓으려던 부지였습니다. 배다리의 이야기를 듣고 가치와 매력, 역사를 알고 배다리 양조장으로 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스페이스 빔' 하면 강동 로봇이 생각나는데요. 강동 로봇은 언제부터 자리하게 되었나요?

“스페이스 빔에서는 해마다 신진작가초대전을 여는데요,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을 보고 초대합니다. 2008년 우연한 계기로 강동 로봇을 보게 되어 작가에게 전시를 부탁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작가와 이야기해보니 전시작품을 둘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을 막는 데 있어서 왜 '예술'을 선택하셨나요?

“지역미술이 지역 활성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행사 등을 통해 지역과 관계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면 지역의 가치와 내역이 드러나고,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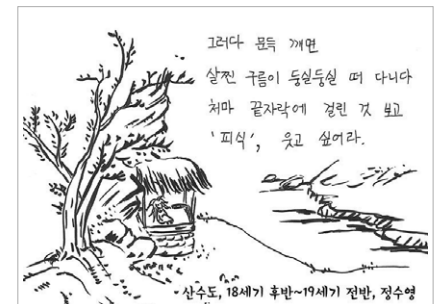
배다리는 인천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저장고이다. 적어도 1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근대 이후 인천에서 생겨난 마을 중 가장 오래된 마을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곳이 경제 살리기란 명분의 산업도로 공사로 만신창이가 될 위기에 처했었고, 지금도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배다리의 가치를 아는 인천 시민들이 많아져서 배다리의 개발 위기를 막고,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Page Cartoon

야미yam의 생활 속 미술사

전시교육과 조유미



자료수집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유물기증

유물관리와 박웅은



경대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탁, 발굴, 이관 등의 경로를 통해 수집된다. 이 중 구입을 통한 유물수집이 그동안 박물관에서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구입을 통한 유물수집은 예산상의 제약 및 유물이 유통되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시민들이 문화재를 소장하는 예가 많다. 또한, 오래된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품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문화재나 유물을 수장하는 경우에는 보존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문제 속에서 기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넘겨주어, 박물관이 이것을 유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증희망자의 기증신청 : 유물기증원 접수



- 2) 기증유물 심의 및 인수
- 심의기준
 -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 활용도
 - 문화재적 가치 및 기존 소장유물과의 중복여부
 - 소유과정의 적법성 여부
 - 심의 후 기증유물 인수 또는 반환



3) 기증증서 발급



4) 유물등록



5) 기증자 예우 : 감사패 증정, 박물관행사 초대 등

최근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적인 관심이 '가까운 과거'에 모아지고 있다. '가까운 과거'란 우리가 살아왔고 기억하는 근현대 삶의 모습들을 뜻한다. 이것은 근대화에 성공한 우리 자신의 여유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관련분야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면, 새로운 연구분야로서 근현대 시기가 갖는 매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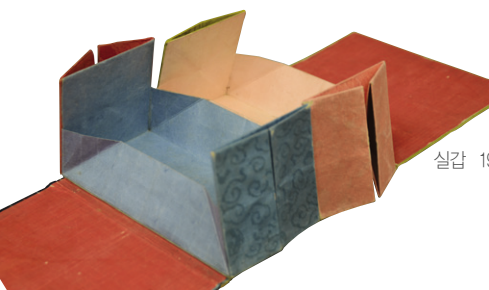
어쨌든 이제는 유물이라는 것이 꽤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오래된 것들, 우리네 삶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박물관 유물이 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2013년도 상반기 기증유물로 살펴보아도 졸업앨범, 부모님의 신분증 등 우리 주변의 유품들이 기증된 예가 많다. 인천의 다양한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기증자들을 모시고 8월 21일 감사패 증정식을 거행하였다. 다시 한 번 이 글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물기증 연락처

(406-050)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과
T. 032 440 6744 F. 032 440 8871
E-mail. windpark1@korea.kr

홈페이지

<http://museum.incheon.go.kr> > 소장유물 > 유물기증 참조



실감 19세기 말

박물관 소식 | 전시 | 행사 | 교육 |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주 제 | 국악, 클래식, 팝페라, 재즈,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
 일 시 | 2013년 3~12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일반시민 20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박물관장대소, 토요일!

주 제 | 2명의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학습
 일 시 | 2013년 9~12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세미나실, 3층 해넘이방
 대 상 | 회당 초등학생 동반가족 30팀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가족체험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 제 | 아름다운 우리 집 만들기,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일 시 | 2013년 1~12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대 상 | 회당 가족 15팀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어린이체험 가재 박물관으로

주 제 | 박물관 전시 및 초등학교 교과 연계 체험학습
 일 시 | 2013년 9~12월,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대 상 | 인천시내 초등학교 한 학급
 신 청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어린이체험 상설체험교실

주 제 | 도자기, 발굴, 민속놀이, 탁본, 청동기 등 8가지 상시체험
 일 시 | 2013년 1~12월
 화~일요일 1일 3~6회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상설체험교실
 대 상 | 회당 초등학생 10명
 신 청 | 당일 안내데스크 접수

| 구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
| 9월 | 전통인쇄 | 도자기 | 발굴 | 탁본 | |
| 10월 | 고건축 | 민화 | 민속놀이 | 청동기 | 전통인쇄 |
| 11월 | 전통인쇄 | 도자기 | 발굴 | 탁본 | 고건축 |

야외음악회 가을의 초대

내 용 | 탱고를 주제로 한 특별한 야외공연
 출 연 | 라 벤타나, 김효영 생황트리오, 협연 4팀
 일 시 | 2013년 9월 14일(토), 오후 7~8시 30분
 장 소 |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대 상 | 일반시민 800명
 신 청 | 당일 선착순 입장

민속행사 동막도당굿

내 용 | 인천 농촌문화 동막도당굿의 재현 공연
 출 연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보존회
 일 시 | 2013년 9월 29일(일), 오전 11~4시
 장 소 |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주 관 | 시립박물관, (사)경기도산이제도당굿연구회

순회특별전 기타큐슈 - 공업도시의 풍경展

주 제 | 일본 기타큐슈시의 근현대 도시풍경을 주제로 한 사진 순회전
 기 간 | 2013년 10월 15일~11월 10일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기획특별전 이 순간들展

주 제 | 사춘기 아이들의 꿈과 희망, 고민을 주제로 한 청소년 참여전
 기 간 | 2013년 7월 30일~9월 29일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작은전시실 scene "B"展

주 제 | 박물관 소식지 발행 5주년 기념 B컷 표지사진 전시
 기 간 | 2013년 7월 16일~12월 29일
 장 소 | 시립박물관 2층 작은전시실

청소년진로 뮤지엄·드림캐처·드림하이

주 제 | 전시기획 등 박물관의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고 진로계획 세우기
 일 시 | 2013년 9~12월, 화~금요일 오후 2~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대 상 | 인천시내 중·고등학교 한 학급, 동아리
 신 청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신청서 팩스 접수

성인교육 박물관 시민강좌

주 제 | 달콤 씁스름한 역사
 일 시 | 2013년 1~12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일반시민 150명
 신 청 | 당일 선착순 입장

성인교육 제15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

주 제 | 근대, 이국과의 조우
 일 시 | 2013년 9~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성인 14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교육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하반기과정

주 제 | 영화로 읽는 인문학
 일 시 | 2013년 9~12월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 성인 14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주 제 | 개항기 경인가로를 따라서
 일 시 | 2013년 10월 13일(일), 오후 2~6시
 장 소 | 인천 동구·중구 일대
 대 상 | 성인 20명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분관소식

검단선사박물관

떠나요! 고고학 탐험대

주 제 | 발굴현장답사, 선사박물관 관람을 통해 유물의 발굴·수습·전시과정 이해
 일 시 | 2013년 9~11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4시
 장 소 | 검단선사박물관, 발굴현장(수도권 내)
 대 상 | 초·중등학생 동반가족 15팀 이내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 의 | 032-440-6790, 6796~7

폴리머 속 신기한 유물 이야기

주 제 | 클레이를 이용한 선사유물 장신구 만들기
 일 시 | 2013년 9~12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 소 | 검단선사박물관 하늘정원, 아동도서관
 대 상 | 6세~초등학생 동반가족 5팀 이내
 신 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비 용 | 재료비 4,000원
 문 의 | 032-440-6790, 6796~7

정수영 산수도(鄭遂榮 山水圖)

소장유물 유물관리과 윤현진



〈산수도〉 정수영 조선 19세기 73.5×45.5cm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바위산 아래 초라한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 안에서 고사(古士)가 먼 산을 올려다보고 있다. 산들은 첩첩이 쌓여있고, 고사가 있는 곳에 이르려면 다리까지 건너야 하니 깊은 산 중의 산이다. 전경의 잎이 마른 고목들과 마른 붓질이 깊은 산 속의 스산한 느낌을 더한다. 그림 중간에 줄지어 있는 나무들로부터는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림 상단 여백에는 “지우재가 적다(之又齋題)”라고 낙관을 해놓았다. 속세로부터 은일(隱逸)한 고사의 모습을 담은 이 전형적인 산수화는 조선후기의 화가 지우재 정수영(之又齋 鄭遂榮, 1743~1831)의 작품이다.

정수영의 구체적인 생애는 전하지 않지만, 조선초기의 대학자 정인지(鄭麟趾)와 조선후기의 지리학자 정상기(鄭尙驥)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영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증조부 정상기가 완성한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전사(傳寫)와 교보(校補)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시·서·화와 여행에 심취하여 일생을 보냈다고 전한다. 이러한 그의 이력 때문인지 정수영의 개성은 전통적인 정형 산수화에서보다는 진경산수화에서 드러난다. 정수영은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유람하면서, 《한강임진강유람사경도권(漢江臨津江遊覽寫景圖卷)》, 《해산첩(海山帖)》, 《금강전도권(金剛全圖卷)》 등의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정수영은 특히 경치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중요시 했다. 《한강임진강유람사경도권》은 한강에서 임진강으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경치를 두루마리에 기록하였고, 《해산첩》은 금강산 유람 시 유탄(柳炭)으로 작성한 초본을 기초로 그려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수영의 진경 산수화는 현대의 스케치들을 연상케 한다.

정수영은 진경산수화를 그릴 때는 자유분방한 필치를, 정형산수화를 그릴 때는 안전한 필치를 사용하였다. 이 그림 역시 정형산수화에 어울리게 안전한 필치로 그려졌고, 중국에서 전래된 화보(畵譜)의 기본 구도를 충실히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평범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문예와 유람에 심취하던 정수영의 이상향이 이 그림 속에 있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60번길 26

T. 032 440 6750 F. 032 440 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명숙

기획·편집 전시교육과 안성희 |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숙 정효숙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웅 디자인·인쇄 동양인쇄사